

#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우울감 및 분노표현 방식에 관한 연구<sup>†</sup>

##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Depressive Mood on Anger Expression Style among College Students

유현숙·정혜정\*·이주연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Hyun-Sook Yoo·Hyejeong Chung\*\*·Juyeon Lee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s a family-related variable, and depressive mood as an individual variable on anger expression styl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Anger expression style was divided into three domains including anger-in, anger-out, and anger-contro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37 college student respondents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male students displayed higher levels of anger-control compared to females, but no gender-related difference in the level of anger-in and anger-out. In addition, anger-control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arental attachment. However, anger control in terms of anger-in and anger-out were negatively related to parental attachment and positively linked to depression. Additionally, parental attachment demonstrat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ve moo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indicated that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 of gender, anger-control expression style was influenced by parental attachment but not by depressive mood. In addition, anger-out and anger-in expression styles were influenced by depressive mood but not by parental attachment. Finally, implications for educators and clinicians working with college students and their family a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parental attachment, depressive mood, anger expression style

### I. 서론

분노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인간의 기본 정서 중 하나이다. 분노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경험하는 사람은 91.8% 이고, 이 중 25.3%가 일주일에 3 ~ 5번 정도 표현한다(Chon, 1999). 그러나 분노 그 자체가 좋 다거나 나쁘다고 단순히 판단 할 수는 없다(Jeon, 2007).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분노 그

자체에 대한 것 보다 분노표현 방식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분노표현이 적절하고 건설적이면 자신이나 타인에 가해지는 위협적인 공격에 대해 방어 할 수 있고, 정서적 성숙 및 만족스런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Ko, 1994). 반면에, 부적절한 분노표현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억제될 경우 다른 부정적 행동과 정서로 대체되며, 지나치게 빈번히 표출될 경우 신체와 정신 건강의 부정적 영향 및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문제해

<sup>†</sup>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 논문을 수정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Chung, Hye jeong  
Tel : 063-270 - 3828, Fax : 063-270 - 3839  
Email : chunghj@jbnu.ac.kr

결을 위축시킨다(Ko, 1994).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해 분노를 과도하게 억압하거나 표출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Jeon, 2007), 더 나아가 반사회적 행동을 표출하여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까지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크게 강조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로 개인의 분노표현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분노는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대처해야 할 정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억제하고 참아야 하는 정서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자신이 분노하게 된 원인이나 맥락을 파악하여 해결하거나 적절히 표현하는 노력은 매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특히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분노를 적절히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첫째, 청년 체감 실업률 11.3%(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라는 심각한 취업난으로 부모로부터 심리적·경제적 독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다른 발달단계에 속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불안 및 분노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나 이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Jeong, 2009). 둘째, 대학 시기는 대학입시 동안 미루어두었던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까지는 혼란과 좌절, 갈등의 시기를 보내고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 못하면 고립과 자기 몰입에 빠져 정서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적 부적응과 인간관계 갈등으로 분노를 자주 경험한다(Ko, 1994). 셋째, 대학 시기는 또한 이성교제하며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로, 이성간에 발생하는 여러 갈등상황 속에서 분노를 많이 경험한다. 이때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며 표현하는 것은 미래 결혼생활을 준비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Thoresen & Pattillo, 1988). 그러나 이와 같이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노표현 방식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학생의 분노표현 방식은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분노와 적대감은 애착과 같은 가족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owlby, 1980; Kim, 2001; Thoresen & Pattillo, 1988). 즉 애착은 분노를 표현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Bowlby, 1980) 불안정한 애착유형은 분노와 적대감 같은 개인적인 성향을 발달시키는데 기여

한다(Thoresen & Pattillo, 1988). 또 부모애착 수준이 높으면 분노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긍정적으로 표현하나, 반대로 낮으면 분노를 억압하거나 과도하게 표출한다(Bowlby, 1980).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관계 중심적 경향이 강하고 부모-자녀관계에서 심리적 독립보다 정서적 친밀성을 강조함으로써 가족관계가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런 관점은 성인 초기인 대학생 시기에도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됨을 나타내준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애착과 분노표현 방식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Kim, 2001; Oh, 2002)과 청소년(Kim, 2008)을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

한편,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의 37.5%(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0)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우울은 대학생의 23.2%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우울 평생 유병률 5.6%(남자 3.6%, 여자 7.6%)인 것(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을 고려한다면 대학생의 우울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울은 대학생의 발달과업 성취를 어렵게 하고 대학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여 졸업 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사회적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우울은 분노표현 방식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의 우울, 분노, 분노표출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Puskar *et al.*, 2008), 분노표현 중 분노를 내재화하는 청소년의 경우 분노를 외현화하는 청소년들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Cautin *et al.*, 2001), 중년기 분노 또한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ark *et al.*, 2005). 즉 우울감이 높은 사람은 분노, 수치심, 죄책감, 자기 지향적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여 분노표출, 분노억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Chon, 1999),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동 및 청소년과 중년기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분노표현 방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Jeon, 2007; Kim, 2008; Ko, 1994; Koo, 2010)들을 기초로 할 때, 대학생의 분노 대처 방식에서의 성차 뿐 아니라 애착과 우울감이 분노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우울감 및 분노표현 방식의 상호관계 뿐 아니라 대학생의 분노표현 방식에 대한 부모애착과 우울감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노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성별의 통제효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간관계 훈련 및 가정과 직장생활의 성공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애착, 우울감, 분노표현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우울감 및 분노표현 방식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우울감 및 성별은 분노표현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주요개념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애착, 우울감, 분노표현 방식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애착이란 자신과 특정 개체 사이에 형성되는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로, 최근에는 평생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전생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Bowlby, 1980). 특히 생후 초기에 형성된 애착관계는 아동기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후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성격발달, 사회적 적응, 심리내적 및 대인관계 적응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이다(Bowlby, 1980). 또한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자신과 타인의 반응을 예상하고 상황의 의미를 해석하는 등 세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인기의 적응을 예측하는 인지적, 정서적, 대인 관계적 지표가 됨을 여러 연구에서 밝혀 왔다(Bowlby, 1980; Jang, 2000). 즉 애착은 초기의 관계 경험을 참조하여 자신에 대한 개념을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작용되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결정규칙을 제공하게 된다. 애착은 애착 대상을 포함하여 타인을 이해하는 것, 가까운 관계에서의 경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인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등 대인관계와 관련된 개념 발달과 연관된. 따라서 애착은 또래, 연인, 배우자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에서 적절한 유능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의미 있는 차원

이라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정서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안정적인 애착정도가 유능감이나 성취감, 독립심 등 문제해결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완충작용(Kim, 2009)을 한다.

다음으로 우울감은 단순한 슬픔이나 외로움, 자기비하 등의 울적한 기분상태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 무력감 등 정서장애 현상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광범위한 심리적 상태를 나타낸다(Kim & Chun, 2001). 우울의 일반적인 특성은 작고 사소한 일에서도 슬픈 감정이 심하고, 생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결여되어 활동수준이 저하되고, 비관적인 사고가 팽배하여 자신이 처한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어둡게 본다. 또 사소한 사건에도 의사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켜 주위의 환경과 고립되어 생활하며, 식욕부진, 피로감, 불면증, 체중감소, 불규칙한 배설작용과 같은 뚜렷한 신체적 증상도 수반된다(Pfeiffer *et al.*, 1988). 우울감은 또한 '심리적 감기'라고 할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흔한 심리적 문제이지만, 특히 성인 초기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그 발생 빈도와 심각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조사에 따르면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 중 19.4% 정도가 20 ~ 29세인 후기 청소년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0), 후기 청소년기의 전형적인 우울 반응으로는 불안정감, 부족감, 절망감, 고독감과 학업부진, 자신감의 감소 등이 포함 되어 생물학적인 원인보다는 심리적인(Pfeiffer *et al.*, 1988) 요인이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노란 보통 화를 의미하며, 자신의 적대적이고 불쾌한 감정을 내부로 억제하거나 외부로 표출하는 심리적인 현상(Chon, 1999)이다.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쏟아 내거나, 상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타임아웃이나 신체적 가해 혹은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 언어폭력, 짜러보는 시선, 속으로 비난하며 중얼거리기, 다른 일에 몰두하기, 수동공격적인 방해, 따돌림 등 매우 다양하다(Jeon, 2007). 이렇게 표현되는 분노감정의 상태는 개인이 느끼는 감정의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르게 경험되고, 반응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개인에 따라서 반응하는 경향에 차이가 있다. 분노표현 방식은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in), 분노조절(anger-control)로 구분할 수 있다(Spielberger *et al.*, 1985). 첫째,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인 분노표출은 분노를 유발

하게 한 요인 속에서 타인이나 그 대상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비난, 욕설,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등과 같은 외현적 행동을 하는 방식이다. 분노표출은 또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가치나 욕구와 신념을 지키려고 폭발, 격노, 위협, 비난을 포함하는 언쟁, 빈정 거림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표현 형태도 포함되며 (Chon, 1999), 외부로 표출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흥분하여 분노발작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살인까지도 일으키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Averill, 1982) 가져오기도 한다. 둘째, 분노억제 또한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으로 분노를 자기 내부로 돌리거나 분노 유발 상황과 관련된 사고나 감정을 억제시킨다. 따라서 분노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대인관계 안에서 자신을 내부로 움츠려들게 만들고 관계를 회피하며 내면에서만 타인을 비난한다(Spielberger *et al.*, 1985). 분노억제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울이 높고, 불안증세도 증가하여 문제대처능력이 현저히 낮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수행능력에서도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Lee, 2008; Lee & Kim, 2000). 셋째, 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인 분노조절은 화가 난 지금의 상태를 지각하고 조절, 관리하며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무엇보다도 분노를 유발시킨 상대방을 이해하려 함과 동시에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방식(Spielberger *et al.*, 1985)이다. 또 분노를 경험하게 될 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강도로 분노를 표현하고 분노를 유발시킨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가 현재 느낀 분노의 감정을 언어적인 형태로 표현하여 전달하려 한다(Lee & Kim, 2000). 따라서 분노조절은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Tavris, 1982) 동시에 분노의 영향으로 초래된 신체적, 심리적 불균형 상태에서 회복하고 분노상황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Park, 2010).

## 2.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우선 부모애착과 분노표현 방식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이 두 변인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비교적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아동(Moon & Park, 2008)·청소년(Jang & Lee, 2010)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안정애착의 경우는 분노조절을 긍정적

으로 조절하여 분노유발 상황을 비공격적인 적응행동으로 변화시키고자 했으나, 불안정한 애착의 경우는 분노억제나 분노표출과 같은 부정적인 분노표현 방식을 안전 애착을 형성한 아동, 청소년보다 더 자주 사용하였다. 외국의 경우 영, 유아기 때 형성된 애착은 분노표현 방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사춘기를 거쳐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Bowlby, 1980). 즉 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은 분노 표현 시 문제 해결적인 반응을 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표현하였으며, 분노를 자주 경험하지 않았고, 분노를 느끼는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강도도 강하지 않았다(Mikulincer, 1998). 또한 분노 상황에 대한 편집 증적인 인지 편향이나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벌을 주려는 통제 불가능한 충동보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인 방식으로 대처했다(Mikulincer, 1998).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밖으로 분노 표출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Snyder *et al.*, 2003).

다음으로 부모애착과 우울감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Kim, 2009), 청소년(Lee, 2006; Ok, 1998), 대학생 및 성인(Kim, 2009; Jang & Lee, 2010) 등 다양한 발달단계를 대상으로 애착의 수준에 초점을 두어 측정하거나, 안정적/불안정 애착 유형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 졌다. 양육자와의 불안정 애착은 우울증을 발달·유지시키고(Bowlby, 1980), 세대를 이어 전수하며(Beck, 1976), 불안정 애착집단이 안정적 애착집단보다 두 배의 우울증 발병률을 나타냈다(Jang & Lee, 2010). 또한 애착이 불안정으로 형성된 아동의 우울 증상은 높고 유능감은 낮은 반면, 안정적으로 형성된 아동은 유능감 뿐만 아니라 근면성, 책임감, 준법성, 사회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 우울 증상이 낮았다(Kim, 2009). 그리고 부모와의 안정애착은 우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표현하거나 억제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 욕구, 신념과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고려하여 우울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했다(Jang & Lee, 2010). 연구들을 종합하면 안정 애착유형이 불안정 애착 유형보다 우울수준이 현저하게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울감과 분노표현 방식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우울감과 분노표현 방식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과 분

노역제간에 정적 상관(Biaggio & Godwin, 1987)을 나타내고, 우울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자기를 책망하는 분노경향이 높았고(Deffenbacher & McKay, 2000; Ellis & Tafrate, 1997; Lazarus, 1991, as cited in Seo & Kwon, 2006)우울증 집단의 약 30 - 40%가 분노발작을 보였다(Lee & Won, 1998). 또한 우울이 강한 사람은 일시적인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높고, 일상생활에서 분노표출 사건이 더 빈번하였다. 그리고 분노상황에서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는 생각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생각하며, 그러한 상황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되었다(Solomon, 1987).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분노조절과 우울감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Kim, 1996), 우울증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적대감과 분노를 나타냈으며(Lee & Won, 1998), 우울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분노 조절 수준은 낮고(Ko, 1994), 분노억압 행동과 분노표출 행동은 증가했다(Chon, 1999). 이를 종합해보면, 분노표현 방식 중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이 높을수록 우울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분노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우울감을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노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을 지각하는 수준이 현저하게 낮음을 볼 수 있고, 대인과의 관계망 안에서 분노조절도 적절하게 표현되어 사회적 측면에서 잘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분노표현 방식과 우울감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분노표현 방식에서 분노조절은 우울수준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변인들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변인(성별, 학년, 전공, 부모학력, 결혼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부모 애착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지각한 연구(Bae, 2007; Jang & Lee, 2010)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Jang, 2000)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Kim, 2009) 등 그 결과가 서로 상이하였다. 또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부모애착을 더 높게 지각하거나(Bae, 2007) 연령 또는 학년에 따른 부모 애착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Kim, 2009), 부의 학력이 중졸이하 집단보다 고졸 이상 집단에서 부모애착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Hwang, 2007; Lee, 2006),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집단이 부모가 이혼/별거 집단보다 부

모에 대한 애착을 높게 지각하였다(Hwang, 2007; Lee, 2006). 우울감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Kim *et al.*, 2009)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Ko, 1994)는 연구결과 등 그 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고, 연령이나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수준이 증가하고(Hwang, 2007; Lee, 2006; Park, 2008), 부모의 결혼 상태가 초혼으로 부모가 함께 동거 중인 집단보다 그렇지 못한 집단의 우울감이 더 높게 나타나거나(Hwang, 2007), 부모의 결혼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ark, 2008). 분노표현 방식의 경우 분노표출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표출한다는 연구결과(Lee, 2008; Park, 2010) 뿐 아니라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표출한다는 결과(Kim, 2008)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결과(Koo, 2010) 등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분노억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Koo, 2010; Kim, 2008)로 일관성 있게 나타났고, 분노조절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Kim, 2008; Park, 2010). 연령의 증가에 따라 분노표출과 억제는 차이가 없으나 분노조절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적 통제도가 증가하여 분노에 대한 조절 능력이 증가했다(Chon, 1999; Lee, 2008). 그리고 부와 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분노표현 방식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Park, 2010), 부모의 결혼 상태, 전공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자료는 2009년 9월 1일 ~ 10월 30일까지 전라북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각 대학의 교수와 강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그리고 설문응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본 조사는 총 5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454부를 수집하였으며, 그 가운데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질문지 17부를 제외한 437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2.17세( $SD=1.89$ )이었으

며, 성별은 남학생 164명(37.5%)과 여학생 273명(62.5%)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문계 178명(40.7%), 자연계 178명(40.7%), 예체능계 81명(18.6%)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 89명(20.4%), 2학년 129명(29.5%), 3학년 120명(27.5%), 4학년 99명(22.6%)이었다. 부의 학력은 대졸이하 225명(51.5%), 대졸이상 212명(48.5%)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모의 학력은 대졸이하 285명(65.2%)가 대졸이상(152명, 34.8%)보다 많았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407명(93.1%)으로 이혼 또는 별거 상태 30명(6.9%)보다 훨씬 더 높았다.

## 2. 측정 도구

### 1) 분노표현 방식

분노표현 방식은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분노표현 척도를 Chon, Hahn, Lee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STAXI-K;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 Korean version)는 원래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및 분노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를 제외한 분노표현을 나타내는 분노조절(8문항), 분노표출(8문항), 분노억제(8문항) 3가지 요인, 총 24문항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노표출(anger-out)은 주어진 환경에서 주위의 다른 사람이나 물건 등 어떤 대상에게 개인적으로 자주 분노를 표현하는 외향화된 분노 반응이다. 분노억제(anger-in)는 분노 감정을 참거나 억압하는 내향화된 분노 반응이며, 분노조절(anger-control)은 분노에 대한 감정과 표현을 조절하려는 긍정적인 분노 표현 반응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에 대한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분노조절), 분노를 과도하게 표출하는 경향이 높으며(분노표출), 분노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높음(분노억제)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분노조절 .85, 분노표출 .83, 분노억제 .77 로 나타났다.

### 2) 부모애착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에서 부모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부모애착 척도는 부모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차원의 애착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의사소통의 질(10문항), 상호 신뢰감(10문항), 소외감(8문항)의 3개 하위영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의사소통 문항과 신뢰감 문항을 합한 점수에서 소외감 문항 점수를 뺀 것을 부모애착 점수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부모애착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로 나타났다.

### 3) 우울감

우울감은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을 지난 한 달간 얼마나 자주 우울한 기분을 경험하였는가를 4점 리커트 척도(경험한 적이 없다(1점), 거의 매일 그렇다(4점))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을 높게 지각함을 나타낸다.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는 .84 였다.

##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세 가지 주요변인에 대해 신뢰도(Cronbach's  $\alpha$ )를 검증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외에 t-test와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부모애착과 우울감이 분노표출 방식(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애착, 우울감, 분노표현 방식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부모애착( $t = 3.18, p < .05$ )과 분노표현 방식 중 긍정적인 분노 표현인 분노조절( $t = 4.96,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애착 수준과 분노조절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부모애착( $t = 3.85, p < .05$ ), 우울감( $t = 2.93, p < .05$ ), 분노표출( $t = 4.70,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1학년이 2, 3, 4학년 보다 부모애착 정도는 더 낮고, 우울감과 분노표출 경향은 더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에 따라서는 예체능계 학생들이 인문계, 자연계 학생보다 부모애착( $t = 5.09, p < .01$ ) 정도와 우울감( $t = 2.92, p < .05$ )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를 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분노표출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부( $t = -3.26, p < .01$ )와 모( $t = -2.74, p < .05$ )

05) 각자의 대졸이상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 분노표출을 부정적으로 더 많이 나타냈다. 그리고 부모의 결혼 상태에 따른 차이는 부모애착과 우울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이혼 및 별거 집단보다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집단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 $t = 2.81, p < .01$ )는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우울감( $t = -2.05, p < .05$ )은 더 낮게 나타났다.

## 2. 부모애착과 우울감 및 분노표현 방식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부모애착은 우울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 $r = -.41, p < .001$ )을 나타냈고, 분노표현 방식의 하위요인인 분노조절과는 정

(Table 1) Difference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M(SD) / D

Category	Variables	Parental attachment	Depressive mood	Anger Expression Style		
				anger-control	anger-out	anger-in
Gender	Male	4.48(1.28)	2.04(.42)	2.55(.61)	2.04(.61)	2.26(.58)
	Female	4.09(1.23)	2.12(.35)	2.27(.53)	1.95(.52)	2.29(.53)
	<i>t</i> -value	3.18*	-1.93	4.96*	1.63	-.69
Grade	1	3.87(1.47) <sup>b</sup>	2.19(.45) <sup>a</sup>	2.37(.64)	2.17(.65) <sup>a</sup>	2.32(.63)
	2	4.28(1.18) <sup>a</sup>	2.06(.33) <sup>b</sup>	2.30(.51)	1.91(.53) <sup>b</sup>	2.22(.53)
	3	4.46(1.22) <sup>a</sup>	2.06(.41) <sup>b</sup>	2.45(.57)	1.92(.51) <sup>b</sup>	2.28(.57)
	4	4.24(1.18) <sup>a</sup>	2.06(.32) <sup>b</sup>	2.39(.59)	2.00(.53) <sup>b</sup>	2.31(.47)
	<i>F</i> -value	3.85*	2.93*	1.51	4.70**	.73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4.08(1.34) <sup>b</sup>	2.07(.36) <sup>b</sup>	2.31(.59)	1.96(.57)	2.31(.56)
	Natural	4.21(1.16) <sup>b</sup>	2.07(.39) <sup>b</sup>	2.42(.56)	1.98(.53)	2.26(.55)
	Arts & Physical	4.57(1.23) <sup>a</sup>	2.18(.39) <sup>a</sup>	2.41(.59)	2.07(.61)	2.25(.53)
	<i>F</i> -value	5.09**	2.92*	1.70	1.16	.45
Farther's Education	High school	4.18(1.21)	2.08(.35)	2.31(.54)	1.90(.49)	2.27(.55)
	College	4.29(1.33)	2.09(.41)	2.44(.60)	2.08(.61)	2.29(.56)
	<i>t</i> -value	-.94	-.27	-2.39	-3.26**	-.25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4.17(1.24)	2.09(.37)	2.33(.56)	1.93(.52)	2.27(.56)
	College	4.35(1.32)	2.08(.40)	2.47(.60)	2.09(.62)	2.30(.54)
	<i>t</i> -value	-1.33	.44	-2.39	-2.74*	-.44
Marital status	Intact	4.28(1.25)	2.08(.37)	2.38(.58)	1.99(.56)	2.28(.55)
	Divorced/ Separated	3.58(1.33)	2.25(.44)	2.33(.44)	1.97(.62)	2.26(.59)
	<i>t</i> -value	2.81**	-2.05*	.42	.20	.18

\*  $p < .05$ , \*\*  $p < .01$ , \*\*\*  $p < .001$

적 상관관계( $r = .21, p < .001$ )를, 분노표출( $r = -.18, p < .001$ )과 분노억제( $r = -.15, p < .01$ )와는 부적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즉 남녀 대학생이 부모와의 애착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감은 낮게 지각하고, 분노를 긍정적으로 적절히 표현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분노감정을 주위의 다른 사람이나 물건들에 표현하는 외향화된 분노표출과 분노감정을 억제하거나 과도하게 참는 분노 억제 경향은 낮았다.

다음으로 우울감은 긍정적 분노표현인 분노조절( $r = -.11, p < .05$ )과는 유의한 부적상관 관계를, 부정적 분노표현인 분노표출( $r = .38, p < .001$ )과 분노억제( $r = .42, p < .001$ )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우울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은 낮아지는 반면, 분노 감정을 주위 사람이나 물건에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하거나 속으로 삭히는 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노조절과 분노표출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r = -.26, p < .001$ )를,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유

의한 정적 상관( $r = .33, p < .001$ )을 나타냈다. 즉 긍정적 분노표현 방식인 분노조절을 잘 할수록 분노표출은 낮아지고, 분노표출이 높을수록 분노억제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분노표현 방식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부모애착과 우울감이 분노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중다회귀분석을 위해 일반적 특성 변인에 따른 분노표현 방식의 차이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독립변인 부모애착 및 우울감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여 잔차간 독립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 ~ 2.16로 잔차간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 변수들간의 다중공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among Variables

	1	2	3	4	M(SD)
1. Parental Attachment	-				4.23( 1.27)
2. Depressive mood	-.41***	-			2.09( .38)
3. Anger-control	.21***	-.11*	-		2.38( .57)
4. Anger-out	-.18***	.38***	-.26***	-	1.99( .56)
5. Anger-in	-.15**	.42***	.09	.33***	2.28( .55)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3)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anger expression style

Variables	Anger Expression Style					
	anger-control		anger-out		anger-in	
	B	$\beta$	B	$\beta$	B	$\beta$
Gender <sup>a</sup>	-.25	-.21***	-.14	-.12**	-.00	-.00
Parental Attachment	.08	.17**	-.02	-.05	.01	.03
Depressive mood	-.03	-.02	.54	.37***	.63	.43***
Constant	2.26		1.03		.91	
F	13.87***		26.82***		31.12***	
R <sup>2</sup>	.09		.16		.18	
Durbin-Watson	2.16		2.07		2.00	

\*\* $p < .01$ , \*\*\* $p < .001$

a : Male=0, Female=1



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Table 2>)을 통한 상관계수들을 살펴 본 결과, 본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인 분노조절은 우울감을 제외한 성별( $\beta = -.21, p < .001$ )과 부모애착( $\beta = .17, p < .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부모와 애착을 잘 형성할수록, 분노에 대한 감정과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설명력은 9%다. 둘째,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인 분노표출은 부모애착 변인을 제외한 성별( $\beta = -.12, p < .01$ )과 우울감( $\beta = .37, p < .0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우울감이 높을수록 분노 감정에 대해 타인이나 물건에 과격하게 외향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16%였다. 마지막으로 분노억제는 성별과 부모애착을 제외한 우울감( $\beta = .43, p < .001$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으로 우울하다고 지각할수록 분노에 대한 감정을 내적으로 억압하거나 억제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감에 대한 분노억제에 대한 설명력은 18%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성별의 영향력을 통제하면, 기능적인 분노표현 방식인 분노조절에는 부모애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방식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는 우울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라북도 소재의 4년제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애착과 우울감 및 분노표현 방식의 차이와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우울감이 분노표현 방식(분노조절, 분노표현,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과를 기초로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우선 부모애착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애착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Kim, 2009)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와 더 높은 애착을 보인 연구(Jang & Lee, 2010; Ok, 1998)와

는 일치하지 않았다. 부모애착은 또한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1학년이 2, 3, 4학년보다 부모애착을 가장 낮게 지각하여 학년에 따라 부모애착에 차이가 나타난 선행연구(Ok, 1998) 결과와 일치하며, 전공에 따라 예체능 계열 학생이 인문계 및 자연계열 학생보다 부모애착을 높게 지각하여 전공별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가 있다는 Kim(200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부모가 함께 동거 중인 집단이 이혼 또는 별거인 집단보다 부모애착 정도를 높게 지각하여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라 부모애착에 차이가 있었다는 선행연구(Hwang, 2007)와 일치하였다. 이는 영아기 때부터 동일한 부모와 현재까지 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또는 별거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변화나 상실을 경험한 집단보다 애착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우울감은 1학년이 2, 3, 4학년보다, 예체능 계열이 인문, 자연계열보다 더 높게 나타나 연령과 학년 증가에 따라 우울수준이 증가한다(Hwang, 2007; Lee, 2006; Park, 2008)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1학년과 예체능계열이 다른 학년과 다른 전공계열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학생 우울모형 관련요인들을 살펴본 Park(2008)의 연구결과에 따라 성격적 취약성과 가족력을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59%)과 스트레스(42%) 등에 의해 차이가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또한 우울감은 부모의 결혼상태가 이혼 또는 별거인 집단이 결혼생활 중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거나 가정생활이 불만족스러울 때 우울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Hwang, 2007)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분노표현 방식 중 분노조절은 성별에 따른 차이만을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분노조절을 기능적으로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Chon(1999)과 Kim(2008)의 결과와는 일치했지만, 성별에 따른 분노표현 방식에 차이가 없었다고 한 결과(Stoner & Spencer, 1987)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 중심적이면서 문제 회피적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Chon, 1999)의 연구결과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역기능적 표현방식 중 분노표출은 1, 2, 3, 4학년 중 1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이나 학년에 따른 분노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Chon, 1999; Kim, 2008; Lee, 2008)와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 1학년의 경우 입학과 동시에 대학입시와 관련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되는데 이러한 상황적 요인이 이전까지 억압했던 스

트레스 및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데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Song *et al.*, 2009)으로 보인다. 그 외 분노표출이 연령대에 따라 연구대상의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인이라 추측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분노표출은 부와 모의 학력이 고졸이하 집단보다 대졸이상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분노표현 방식에 차이가 없다고 한 Park(201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둘째, 부모애착, 우울감, 분노표현 방식(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우선 부모애착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감과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는 더 낮아지는 반면, 분노조절 능력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모애착과 우울간의 부적 상관(Carnelley *et al.*, 1994; Jang, 2000), 부모애착과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간의 부적 상관(Moon & Park, 2008; Snyder *et al.*, 2003), 부모애착과 분노조절간의 정적 상관(Kim & Chun, 2001)을 나타내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와 애착을 잘 형성할수록 사회화를 바람직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분노에 대한 감정에 반응할 때 적절한 표현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부모와 애착형성이 잘 안될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화를 형성하여 분노에 대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Bowlby, 1980)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우울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기능적인 분노조절 능력은 낮아지는 반면에, 역기능적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분노 표출형/억제형일 경우 우울 증상 호소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 Park *et al.*(2010)의 연구 및 Ko(1994), Kim(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반면, 분노억제와 우울간 부적 상관을 가진다는 Biaggio와 Godwin(198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분노억제나 분노표출이 정적으로 우울감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는 정신분석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분노를 내부로 향하게 하거나, 억압된 분노를 과격하게 표출함으로써 우울이 야기될 수 있으며, 반대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적인 강화를 받지 못하고 처벌 받도록 하기 때문에 정적인 강화의 손실에 대한 공포가 우울로 유발되기도 한다(Biaggio & Godwin, 1987).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분노표현 방식인 분노표출은 분노조절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분노억제와는 정적상관을 나타내 Spielberger 등(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즉 Spielberger 등(1985)의 연구에서는 분노표출과 분노억

제간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개념이 독립적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지지해 주었으나,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행해진 연구들에서는 두 표현 양식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특정 문화권에서는 분노표출이나 분노억제가 상호 독립적인 개념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Chon, 1999). 한편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부정적 정서인 분노 표현은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파악되어 어려서부터 강하게 억제하도록 사회화시키고 있으나, 지속적인 억제시도의 실패와 미해결된 분노가 꼭대기까지 쌓인 상황 등에서는 폭발적 양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현상들이 사회 여러 곳곳에서 이슈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분노를 유발한 대상과의 관계, 권위나 친밀감 등에 의해서도 분노억제와 표출이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보여 진다. 이렇게 볼 때 분노표출과 억제가 독립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될 수 있겠다.

셋째, 분노표현 방식(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인 분노조절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그리고 부모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성별로 나타났다. 이는 분노란 정서가 남녀간 생물학적 차이 외에도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가혹하게 평가되는 사회문화적 규범을 갖고 있고, 이 때문에 여성은 어린 나이부터 분노란 억제되어야 하는 정서로 학습되어 분노표현에서 남녀가 서로 다르게 경험하고 표현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특히 집단주의적 문화 아래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분노표현은 사회적인 관계와 대인적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두려워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삭히는 작업이 당연하다고 여겨 분노를 적절히 통제, 조절하는 것조차 의식적으로 하기 어려웠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앞으로 성역할 측면의 성별차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분노표현 방식에 대한 연구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긍정적 분노표현 방식인 분노조절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는 부모와의 애착이라는 가족환경요인이 분노표현 방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취업과 같이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정서 변화를 경험하는 성인 초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노와 같은 정서적 특성 발달과 부모애착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큰 의의가 있겠다. 즉 부모애착은 성인 초기로 진입하는 대학생들의 정서 발달

특성상 겪게 되는 분노경험과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으며, 애착의 내적 작동 모델이 분노를 경험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Bowlby, 1980), 불안정한 애착은 분노와 적대감 같은 개인적인 성향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연구결과(Thoresen & Pattillo, 1988)를 지지하면서, 분노는 애착과 같은 가족 요인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라 하겠다.

다음으로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 중 분노표출은 남학생이, 우울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우울감이었다. 또 분노억제는 우울감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로 인해 분노를 억제하고 가슴에 쌓아 놓은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Deffenbacher & Mckay, 2000; Ellis & Tafrate, 1997; Lazarus, 1991; as cited in Seo & Kwon, 2006)결과와 일치했다. 즉 우울감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사건은 내부로, 긍정적인 사건은 외부로 귀인하는 성향이 강하여 분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고(Lee & Won, 1998), 타인에 대한 적대감 및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를 두려워하는 대신 자신을 비난하거나 분노를 내부로 억압, 억제하는 현상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분노표출 뿐 만 아니라 분노억제 또한 우울감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분노를 더 많이 표현하도록 하거나 반대로 억제하도록 격려하는 것만이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분노를 적절한 방식으로 분노 상황에 따라 통제 조절 표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인초기 대학생의 분노표현 방식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불안정한 정서 변화를 경험하는 대학생의 분노관리 및 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개별화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성별 차이에 근거하여 개인의 부모애착 정도와 우울 정도에 맞는 중재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자료수집 대상을 확대한다면 연구결과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연구는 없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우울감에서 왜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지각한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우울감이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횡단적 자료수집방법에 의해 검증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연구는 아동기부터 시작하여 대학생까지 부모애착과 우울감, 분노표현 방식에 관한 종단적 자료 수집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부모애착의 변화에 따른 우울감과 분노표현 방식의 개인내적 변화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주제어:** 부모애착, 우울감, 분노표현방식

## REFERENCES

- Armsden, G. C., & Greenber,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145-1158.
- Bae, J. Y. (2007).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iaggio, M. K., & Godwin, W. H. (1987). Relation of depression to anger and hostility constructs. *Psychological Reports*, 61, 87-90.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 K.

-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127-140.
- Caution, R. L., Overholser, J. C., & Goetz, P. (2001). Assessment of mode of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Adolescence*, 36(141), 163-170.
- Chon, K. K., Hahn, D. W., Lee, C. H., & Spielberger (1998).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 Anger and blood pressur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1), 60-78.
- Chon, K. K.oo (1999). A preliminary study on anger.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6(1), 173-190.
- Hwang, M. G.(2007).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Jang, A. K., & Lee, J. Y. (2010). The effects of maternal attachment upon the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with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 mediating factor.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8(4), 21-30.
- Jang, H. S. (2000). Attachment and the development of ego identity in college students mediating role of coping way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3(3), 141-157.
- Jeon, S. H. (2007). *Anger-thought and anger expression modes of parents who have elementary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ookmyung Women, Seoul, Korea.
- Jeong, Y. Ch. (2009, December 28). 청년실업 환과 IMF이후 최악. *노컷뉴스*, 자료검색일 2011, 10, 11, 출처 <http://file1.cbs.co.kr/PDF/200912/2009122801-01010401.pdf>
- Kim, E. J. (2001). *Modes of anger expression of the child and parents' child-rearing types and psychological grow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Keimyung, Korea.
- Kim, E. J. (2009).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the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ungshin Woman's, Korea.
- Kim, G. H. (2008).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s rearing types and perfectionism on adolescent's anger ex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atholic, Korea.
- Kim, G. S., Jeon, Y. S., & Lee, C. W. (2009). The influence of attachment, 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on adolescents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7(1), 209-224.
- Kim, S. H. (1996). *Relation of anger expression style, depressive and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orea.
- Kim, S. I., & Chun, Y. C.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depression tendency and their home environment. *Studies on Korean Youth*, 12(1), 5-27.
- Ko, Y. I. (1994). *The relationship among anger expression style, depressive and aggression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 Koo, Y. I. (201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anger expression tyle in university students: Moderation effect of attachment dimen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0).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 2010 청소년 통계.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월보.
- Lee, H. J., & Won, H. T. (1998). Self-concepts and paranoid tendency. *Psychological Science*, 4(2), 15-29.
- Lee, J. S. (2006). *The Influence of mother and peer attachment on adolescent's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K. S., & Kim, K. H. (2000). Effects of anger -

- In tendency and problem - solving on anger experiences and blood pressur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5(1), 60-72.
- Lee, Y. S.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expression patterns and 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Mikulincer, M. (1998). Adult attachment styl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functional versus dysfunctional experiences of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513-524.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 **The Survey of Psychiatric Illnesses in Korea**.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Moon, S. H., & Park, Y. J. (2008). Relation of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trait anger and anger expression adolescent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2), 143-149.
- Oh, J. H. (2002). *A study on the abused experience of children influencing on the patterns of anger ex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oongsil, Korea.
- Ok, J. (1998).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Eun Hee (2008).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parental acceptance on psychological adjustments of adolescent'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Park, K. H. (2008). Development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estimate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38(6), 779-788
- Park, S. A. (2010).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perceive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and parenting attitude on anger ex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Dong-A, Korea.
- Park, Y. J., Baik, S. I., Choi, Y. H., Shin, H. J., Moon, S. H., & Kim, S. Y. (2005). The relation of trait anger and anger expression to cardiovascular responses and depression in middle-aged Korean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7), 1371-1378.
- Park, Y. J., Han, K. S., Shin, N. M., Kang, H. C., Chun, S. H., Yoon, J. W., & Shin, H. J. (2010). Anger, anger expression, and biopsychosocial health in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1), 106-116.
- Pfeiffer, C. R., Newcorn, J., Kaplan, G., Mizruchi, M. S., & Plutchik, R. (1988).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7(3), 357-361.
- Puskar, K., Ren, D., Bernardo, L. M., Haley, T., & Stark, K. H. (2008). Anger correlated with psychosocial variables in rural youth.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31(2), 71-87.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Seo, S. G., & Kwon, S. M. (2006). Verification of the dual cognitive mediation model through the cognitive-behavior program for anger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3), 495-510.
- Snyder, J., Stoolmiller, M., Wilson, M., & Yamamoto, M. (2003). Child anger regulation, parental responses to children's anger displays, and early child antisocial behavior. *Social Development*, 12(3), 335-360.
- Solomon, E. (1987). *An examination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coping mechanisms identified as putative risk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outh Florida.
- Song, J. E., Hwang, S. T., & Jeon, M. J. (2009). Relationship between anger level and

- anger-expression mode : Age group comparis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2), 213-227.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S. F., Crane, R. J.,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an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s*. New York : Hemisphere.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New York: Springer-verlag.
- Stoner, S. B., & Spencer, B. (1987). Age and gender differences with the anger expression sca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7, 483-487.
- Tavris, C. (1982). *Anger : The misunderstood emotio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Thoresen, C. E., & Pattillo, J. R. (1988). *Exploring the type A behavior patter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Houston BK, Snyder CR, editors. *Type A behavior pattern : research, theory, and intervention*. New York: Wiley. 98-145.

| 접수일 : 2011. 11. 03.  
 | 수정완료일 : 2012. 01. 10.  
 | 게재확정일 : 2012. 01. 26.